

baqui

Bicycle Lifestyle Magazine

2011.07 & 08 vol.016

www.baqui.co.kr



FIXED GEAR ACTION

새로운 픽시 놀이, 바이크 사커(BIKE SOCCER)

바퀴와 사람을
놀아하듯 일하고, 일하듯 노는 감독 이사간

SPECIAL INTERVIEW

TRICK CYCLING 지존, INES BRUNN
사이클계의 마오르는 NEW FACE 3인

Let's BMX

BMX 초짜의 성장다구

RIDE IT

TIME TRIAL CYCLE 종결자,
2011 FUJI D6 2.0 잔악리본

한글 습기 때문에 어렸다고 불린다. 지금은 편하다!

(매우 좋아하는) 습기가 뭐 없겠어? 그렇게 어렸다고 불린다. 편하다.

그동안 자기 노고를 부끄러워한다

내 이름은 크리스 브라운(Kris Brown)이고, 독일에서 왔다. 몇, 몇몇 운동을 해온 거나 다름없다. 어렸을 때 세 조를 사자고도 독일의 주심인 산수회 활동 했었다. 13살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고, 우연한 계기로 한 운동을 알게 되었다. 자전거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이클링이었는데, 나도 너무 재미있고 싶어서, 사실 독일에서는 잘사는데 자전거 퍼포이 잠시 스포츠였는데, 그때 사자해서 2005년부터 독일내셔널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이미 2004년에 직장 일을 중국에 오는 바람에 그 후로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독일에서...

독일이 할아버지인 나카인 회사에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사로 일정을 받아 베이킹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할 일만 받아서 한화로 300억 원까지 수익이 되고 산업을 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보다가 2007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텍스도 가서 그들을 만났었다. 당시에는 오직 나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2008년, 우연히 집에서 텍스도, 가어를 하는 5명의 중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참여 시작했다. 그렇게 7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흥들을 구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해엔 처음 한 친구가 자자하는 말로 "내가 술을 음복하는 건 어때?"라고 했다. 오랜 생각 끝에 결국, 2009년에 다녔던 회사를 나와서 일을 자살했다. 그러고 나서, 텍스도, 가어를 하는 친구들도 참여하고 해낸다고 되어있는 아르헨티노 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찾게 됐다. 역시 그런만큼 정말한 행복이 된다. (웃음)

그동안 서울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어떤 행사책이라고 소문나서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 중에 한명의 텍스도, 가이 자자하라고 만나고 텍스도, 가이 사할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텍스 사이클 퍼포먼스' (The Tex Cycle Performance), '올림픽 텍스' (The Tex Cycle) 등 불리는 경호지 제 강강이다. 장시간 전 세계를 다니다 하고 있는 아르헨티노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

'아티스틱 사이클링' (Artistic Cycling)이라 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스포츠이며, 매우 '복합적'이다. 내가 처음 이것을 시작 했을 때만 해도, 모든 예술적인 동작을 경기 규칙상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때엔 왜 '아티스틱 사이클링'이라 부르는지?" 그렇다면 '아티스틱 사이클링'이란 부흥엔 안되지 않나?"라고 물었더니, 어쨌든 규정이 첫 번째가 그렇다 하더라. 사실 그때만 해도 '아티스틱 사이클링'은 독일에서도 큰 인기로는 없었고, 그저 특정 지역에서 열려진 지역경기 정도였다. 물론 당시자들은 이 스포츠를 알리고 활동해 갔을

국제 경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고려할만한 스포츠가 발전할 허가 해서는 안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규정에 열하는 공적 금지, 산수의 해상 금지, 비록 같은 텍스도 입기, 배에 참가 금지, 정확한 원한 만들어 놓기 같은 것들을 무시한 채 독일남부행파인상에 올랐었다. 나의 경기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은 매우 흥미롭지만, 스포츠라기 보다는 그저 "오! 좋다 하더라. 어쨌, 나는 7명의 경기들은 경기대로 유지하러, 텍스사이클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참여적인 표현을 하는 경기를 만들어야 할것이다"라고, 간단하게 거절당했다. 그때엔 최종에 나의 경기를 본 한 회사에서 나한테 공언해와서 했다. 그해부터 나는 경기가 아닌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20년째다. '아티스틱 사이클링'도 현재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보수적이라. 그렇기에 내가 하는 것은 '퍼포먼스 사이클링' 정도로 부르는 게 더 맞았다.



어려운 자전거가 의외스런 사이클링에 적합하?

일반적 1:1의 기어 비의 픽스도 거대다. 이렇게 편을 바와 양상이 좀 다른 것이 보통이고, 중요한 것은 한 줄이 360도 회전해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타기에는 부적합하다.

픽스도 자전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사실, 이번이 13번째 한국 방문이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 한국 자사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가을 휴일에 방문한 것이 2007년이였다. 그때만해도, 자전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막대한의 지난 지음, 한강에서 만났으며, 천주교, 기독교, 나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니 7년이 지나서, 특히, 이번 역시 행사가 매우 인상 깊었다. 일단, 매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픽스도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다른 나라의 형제들은 대부분 편자를 강요하는 데에 피크스가 익숙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이런 행사는 순수하게 픽스를 사랑하는 한국적 혹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중하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다.

전세계를 다니고 의외스런 사이클링을 소개하든요?

먼저,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 동시에 그곳의 자전거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99%의 사람들을 내가 하는 픽스도스를 알면도 분명히 없다고 했다. 그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사이클링을 소개하고, 자전거를 통해 어디라고 해야하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

아시아 문화에 대해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다 볼까요? 얼마나?

나와 첫 회식이 있었던 10년 전, 바로 지금 한국이었다. 개인주의 사람이 부지 바깥 세상에서 '나' 일고도 상대방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에 놀랐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상대방이 얼마까지 정가세 간에 주는 것 등 사람들이끼리 상대방에게 특별한 것에 매우 흥미로웠다. 술상을 치우고 독침에 돌아가는 '아 시러서도 살아 볼 만하구나.' 일이다. 그래서 회사에 다가 아시아의 의사 행동을 자문했더니, 중국으로 보내 있다, 처음에는 영어도 독일어도 통하지가 않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중국어도 행동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아져서 너무 재미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당신의 휴향에 대해 이야기 할까요? 특별한 대외나 감정도 있습니까?

문을 열어 별다른 의도는 없다. 단지, 같이 픽스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을 뿐이다. 오직 픽스도 기어만을 취급한다. 개인적으로도 다른 종류의 자전거는 타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 당연히 자전거가게 의인 하나, 사람들이 그냥 놀러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클럽 같은 곳이기도 하다.



지점장 사이클리스티나 페로페로사의 입문단을 받아
 받을 것 같다. 여자가 카이로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지점
 가 차는 것 말고 다른 취미나 특기가 있는가?

여성다운 일을 기대하겠지만, 난 실제로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의 아웃도어 스포츠를 미친 사람이지. 특히나 좋아하는
 것은 암벽등반과 벽 클라이밍 스포츠. 그리고 사탕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의 장기간 투박할 때는 그런 곳
 에서의 생존하는 것 자체에 희생을 느낀다. 한 번은 중
 국에서 그들을 지켜 오자로 투박한 곳다가 떨어진 이런
 자로 오해 받자, 군인들에게 잡혔다가 간혹 오해가
 풀려 나온 적도 있다. (웃음)

당신의 꿈은?

무엇이든 "내가 너무나 좋아서 못하겠다."라고 내뱉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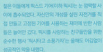
카이로스에게 자전거를?

가면, 차와 함께 그리고 사람?

카이로스에게 한미디 한디안?

자전거란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를 길어내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 모인한 카이로스타일인 양 이야기하지
 만, 특히나 도시에서의 자전거 문화는 현재적으로
 꼭 계속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 이해하는 한국과 자전거 문화나 자전거 카이로스
 타일의 대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소통하
 는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 물론 얻을 수는 있지만, 노
 령이 너무 좋다.





한편 '최초의'라는 말이 포함된 '2세대'라는 말이 나오자, 이 말은 '2세대'라는 말이 '최초'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세대'라는 말은 '2세대'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세대'라는 말은 '2세대'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